

시장이 아직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AI 서비스 상용화와 커머스·핀테크 생태계 확장

NAVER는 AI Tab, AI Briefing, AI Shopping Agent 등을 통해 검색을 단순 정보 탐색에서 행동 실행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동사는 단기 실적주라기보다, AI 서비스 상용화와 커머스·핀테크 생태계 확장에 대한 옵션을 보유한 플랫폼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는 ① AI 검색의 체류시간 및 광고 효율 개선, ② 커머스 거래액 성장, ③ Npay의 온·오프라인 결제 확장, ④ 두나무 편입 일정 및 규제 불확실성 완화, ⑤ AI 인프라 사업의 외부 매출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 경쟁력에 대한 검증 더 필요

NAVER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대비 낮아진 성장 프리미엄과 높아진 AI 투자비 사이에서 평가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이 NAVER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AI 투자가 단기 비용으로 먼저 반영되고 있다. 둘째 커머스 경쟁 심화로 배송·멤버십·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셋째 두나무와의 결합은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와 일정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넷째,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 경쟁력에 대한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다.

AI 인프라 투자와 커머스 비용은 부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와 커머스 비용 부담으로 실적 민감도가 높지만, 26년은 NAVER의 AI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 경험과 매출 지표로 검증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주가 리레이팅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존 NAVER가 국내 검색 광고 대표주였다면, 앞으로의 NAVER는 AI 검색·커머스·결제·클라우드가 결합된 실행형 AI 플랫폼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Fig. 1: NAVER 연결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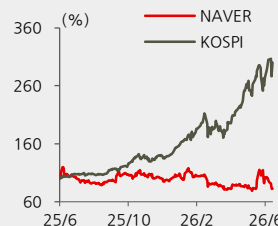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십억원)	10,738	12,035	13,563	14,784	15,671
영업이익	1,979	2,208	2,501	2,884	3,172
세전이익	2,322	2,420	2,664	3,078	3,417
순이익[지배]	1,923	1,953	2,117	2,446	2,715
EPS(원)	11,913	12,376	13,497	15,589	17,306
증감률(%)	92.8	3.9	9.1	15.5	11.0
PER(배)	16.7	19.6	14.8	12.8	11.5
PBR	1.2	1.3	1.0	1.0	0.9
EV/EBITDA	11.3	11.8	8.8	7.6	6.5
ROE(%)	7.9	7.4	7.4	8.0	8.2
배당수익률	0.6	1.1	1.3	1.3	1.3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투자이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6M)	300,000 원
[유지]	50.2%
현재주가	199,700 원
2026/6/25	

주식지표	
시가총액	31,330 십억원
52 주최고가	287,000 원
52 주최저가	191,500 원
상장주식수	15,689 만주/0.0 만주
자본금/액면가	16 십억원/100 원
60 일평균거래량	192 만주
60 일평균거래대금	461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4.8%
자기주식수	727 만주/4.6%
주요주주및지분율	
국민연금공단	9.3%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

추가동향



이종원

인터넷/게임/엔터

bluesky@bnkfn.co.kr

(02)2071-7657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빌딩 10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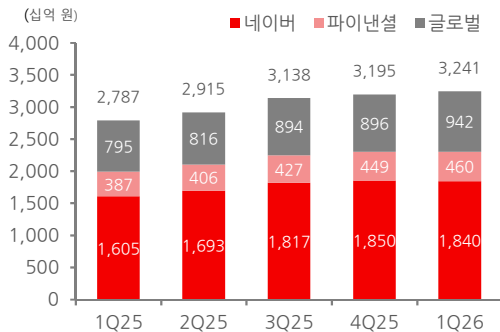
www.bnkfn.co.kr

단기적으로는 AI 투자 확대가 영업이익률을 제한할 수 있지만

NAVER에 대한 투자 판단은 단순한 검색 광고 기업에서 AI 기반 실행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달려 있다. 과거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가 국내 검색 트래픽과 광고 지배력에 있었다면, '26년 이후의 핵심은 검색·쇼핑·예약·결제·콘텐츠 데이터를 AI Agent 흐름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를 광고 단가와 거래액 증가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있다. '25~'26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 재가속과 투자비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었다. 기존 검색 광고의 안정성 위에 커머스, 핀테크, 글로벌 C2C, 클라우드·AI 사업이 더해지며 국내 인터넷 플랫폼 중 가장 견조한 외형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동사에 대한 투자 판단의 근간은 단순한 검색 광고 기업에서 AI 기반 실행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있다. 과거 NAVER의 핵심 투자 포인트가 국내 검색 트래픽과 광고 지배력에 있었다면, '26년 하반기부터의 핵심은 검색/쇼핑/예약/결제/컨텐츠 데이터를, AI Agent 흐름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를 광고 단가와 거래액 증가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26년 1분기 실적은 이 같은 방향성이 이미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결 매출액은 3,24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다만 외형 성장률은 견조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 성장률을 하회했다. 이는 AI 인프라 투자, 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글로벌 C2C 사업 확대 과정에서의 투자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비용 증가의 이유가 명확하며, 그 비용이 향후 매출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AI 투자 확대가 영업이익률을 제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AI Tab, AI Briefing, AI Shopping Agent, Npay 오프라인 확장, NVIDIA AI Factory, 두나무와의 결합이 순차적으로 확인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NAVER는 단기 실적주라기보다, AI 서비스 상용화와 커머스·핀테크 생태계 확장에 대한 옵션을 보유한 플랫폼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는 ① AI 검색의 체류시간 및 광고 효율 개선, ② 커머스 거래액 성장, ③ Npay의 온·오프라인 결제 확장, ④ 두나무 편입 일정 및 규제 불확실성 완화, ⑤ AI 인프라 사업의 외부 매출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Fig. 2: 부문별 매출액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Fig. 3: 네이버 NVIDIA AI Factory 로드맵

연도	용량
2027년 상반기	55MW 가동
2027년 내	100MW 확대
2028년	200MW 확장
중장기	GW 급 인프라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AI 외형 성장은 지속, 연계된 성장포인트 찾기

NAVER는 AI Tab, AI Briefing, AI Shopping Agent 등을 통해 검색을 단순 정보 탐색에서 행동 실행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적은 외형 성장의 안정성을 확인시켜줬고, 하반기에는 AI Tab, AI Shopping Agent, Npay 오프라인 확장, 두나무 일정, NVIDIA AI Factory 관련 사업화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 마진 둔화 구간을 지나 AI 수익화 검증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검색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심이었다면, AI 검색은 비교·추천·예약·구매·결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사가 강점을 가진 로컬 데이터, 쇼핑 데이터, 리뷰, 예약, 결제 데이터를 AI와 결합할 경우, 글로벌 검색 사업자와 차별화된 국내형 AI Agent 경험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와 연계된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커머스 생태계의 고도화다. NAVER의 커머스는 단순 오픈마켓이 아니라 검색, 광고, 스마트스토어, 멤버십, 물류, 결제, 리뷰가 결합된 구조다. AI 쇼핑 에이전트가 본격화되면 사용자는 검색창에서 상품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 비교, 리뷰 요약, 취향 기반 추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검색광고 단가와 커머스 전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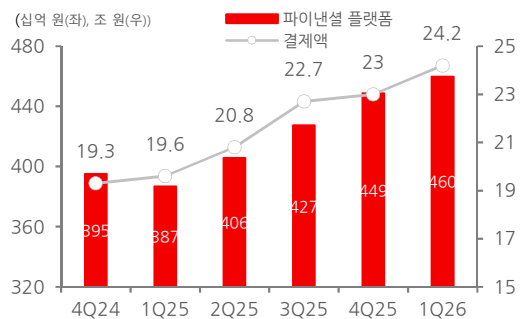
다른 투자 포인트는 Npay의 플랫폼 가치 재평가다. Npay는 이미 대규모 결제액을 확보한 국내 대표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향후 오프라인 결제, 스마트플레이스, 예약, 주문, 멤버십 데이터가 결합되면 Npay는 단순 핀테크 자회사가 아니라 NAVER 생태계의 데이터 허브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나무와의 결합이 마무리될 경우 디지털자산, Web3, AI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NVIDIA AI Factory 및 Sovereign AI 인프라다. NAVER Cloud는 NVIDIA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GPU 기반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 내부 AI 서비스 고도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공·기업 대상 AI 클라우드, 산업 특화 AI 모델, Physical AI, 디지털 트윈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국내에서 대규모 검색·커머스 데이터와 자체 AI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접점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NAVER의 전략적 위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Fig. 4: 지속적인 엔비디아 네이버 협업

연도	세부사항
2019	국내 기업 최초 NVIDIA Super POD 구축, 초대규모 AI 인프라 기반 마련
2025	APEC CEO 서밋에서 피지컬 AI 협력 확대 방안 논의
2026.06	네이버 제 2 사옥 1784 에서 차세대 AI 인프라 협력 구체화
2026.06~	GW 급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본격 추진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Fig. 5: 파이낸셜 플랫폼 매출액 및 결제액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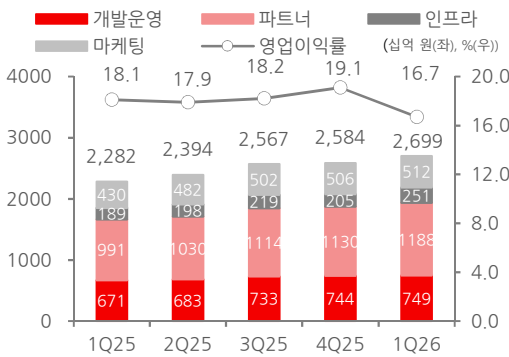
현 시점, 시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

지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본 향후 투자판단의 중요 포인트는 비용 베이스가 안정화되는 동안, 신규 AI 광고와 커머스 전환율 개선이 이익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광고·커머스·C2C 성장성은 확인되었으나, 반대로 AI 인프라 투자와 배송/커머스 비용이 이익률을 얼마나 더 희석시킬지가 중장기적인 숙제로 남게 되었다. 아직 본업 성장성은 살아있지만, AI 수익화가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마진 우려가 밸류에이션 상단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분기 역시 절대적인 순이익 자체보다 OPM 16.7% 등 낮아진 수익성의 방향성이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시장은 AI 투자 확대가 비용으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2H26부터 광고·커머스 매출 레버리지로 이익이 온전히 회수될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NAVER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대비 낮아진 성장 프리미엄과 높아진 AI 투자비 사이에서 평가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이 동사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AI 투자가 단기 비용으로 먼저 반영되고 있다. 둘째, 커머스 경쟁 심화로 배송·멤버십·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셋째, 두나무와의 결합은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와 일정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넷째,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 경쟁력에 대한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현재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옵션도 적지 않다.

AI 검색이 광고 효율을 높이고, 쇼핑 에이전트가 커머스 거래액을 확대하며, Npay가 오프라인과 금융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되고, NAVER Cloud가 AI 인프라 매출을 본격화한다면 NAVER는 다시 플랫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중 실적 안정성과 AI 전환 옵션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다. 동사가 본업의 현금창출력, AI 서비스 점점, 결제 데이터, 글로벌 C2C 확장성, AI 인프라 옵션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Fig. 6: 부문별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률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Fig. 7: 네이버 ADVoost AI 검색 및 대응 방식

	1 DEPTH 브랜드 키워드	2 DEPTH 브랜드, USP	3 DEPTH 브랜드, 다수 USP	4 DEPTH 질의형/모델명
글자 수	1 - 5	6 - 9	10 - 14	15 이상
정의	자사 브랜드 ZONE 일치 검색의 시작점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 ZONE	최상위 광고주 ZONE	일치검색 대응 불가 영역
고객 정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사 고객	신규 고객을 위해 커버해야 하는 확대 영역	탐색 의지가 높은 유저, 고효율 ROI 영역	전환 가능성 높은 유저들이 진입하는 영역
예시	라인프렌즈	라인프렌즈 세일	라인프렌즈 저렴한개파는곳	라인프렌즈 브라운레더라이크 스퀘어카드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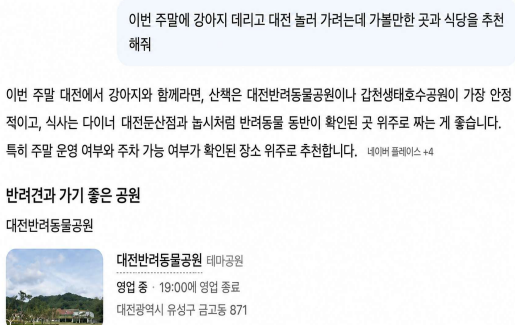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단기이익보다 중요한 미래 투자포인트 찾기

‘26년 하반기 실적은 매출 성장률은 견조하되, 영업이익률은 투자비에 따라 분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영업이익률보다 다음 세 가지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첫째, AI Tab과 AI Briefing 도입 이후 검색 체류시간과 광고 전환율이 개선되는지 여부다. 둘째, NAVER Plus Store와 AI 쇼핑 에이전트가 커머스 GMV와 광고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리는지 여부다. 셋째, Npay 결제액 증가가 단순 거래액 확대를 넘어 금융·광고·멤버십 수익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단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와 커머스 비용 부담으로 실적 민감도가 높지만, ‘26년은 AI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 경험과 매출 지표로 검증되는 첫 번째 해라는 점에서 주가 리레이팅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NAVER가 국내 검색 광고 대표주였다면, 앞으로는 AI 검색/커머스/결제/클라우드가 결합된 실행형 플랫폼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하다. AI 서비스의 사용성이 기대보다 낮거나 광고 매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AI 투자비는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커머스 부문에서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외 경쟁 심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배송/반품/멤버십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두나무와의 결합 역시 규제 환경, 디지털자산 시장 변동성, 일정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26년 국내 인터넷 업종 내에서 가장 뚜렷한 실적 안정성과 신사업 옵션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된다. 광고와 커머스라는 본업의 현금창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AI 검색, Npay, 두나무, AI Factory가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의 다음 상승 구간은 단순히 AI 사업을 영위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AI가 광고 단가/커머스 전환율/결제액/클라우드 매출로 확인되는 시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현재 비용 부담으로 할인을 받고 있지만, 그 비용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한 플랫폼 기업이며,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은 단순 AI 투자 규모가 아니라, AI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될 것이다.

Fig. 8: 네이버 AI T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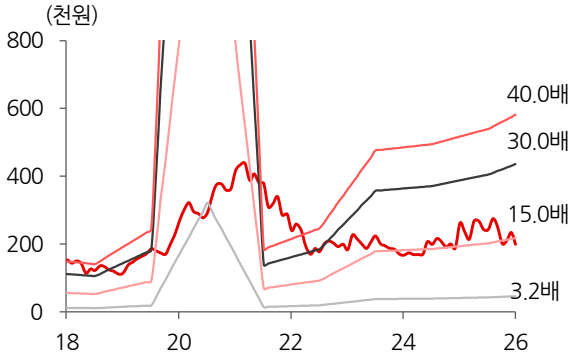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Fig. 9: 네이버 AI Brie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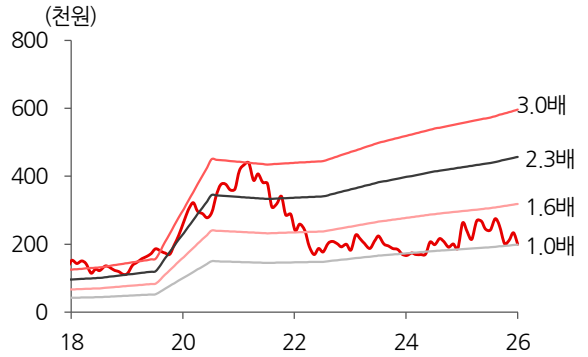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Fig. 10: NAVER PER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 투자증권

Fig. 11: NAVER PBR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 투자증권

표 1. NAVER 분기 실적 추정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2025	2026F
매출액	2786.8	2915.1	3138.1	3195.1	3241.1	3254.7	3497.2	3570.0	12035.0	13563.0
YoY	10.3%	11.7%	15.6%	10.7%	10.2%	10.4%	10.7%	11.2%	12.1%	10.7%
서치플랫폼	1012.7	1036.5	1060.2	1059.6	1394.5	1121.0	1178.0	1198.0	4168.9	4891.5
커머스	787.9	861.1	985.5	1054.0	796.3	1036.5	1186.2	1201.0	3688.4	4220.0
핀테크	392.7	411.7	433.1	453.1	459.7	461.2	471.0	486.0	1690.7	1877.9
콘텐츠	459.3	474.0	509.3	456.7	440.1	478.0	491.0	487.0	1899.2	1896.1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134.2	131.7	150.0	171.8	150.5	158.0	171.0	198.0	587.8	677.5
영업비용	2281.5	2393.5	2567.4	2584.4	2699.4	2627.9	2837.2	2897.6	9826.9	11062.0
개발/운영비	687.7	699.3	749.8	759.2	748.9	774.4	836.1	853.6	2896.0	3204.5
파트너	974.2	1014.0	1097.0	1114.4	1188.0	1123.1	1212.5	1238.0	4199.7	4647.0
인프라	189.3	197.7	218.6	205.2	250.8	216.8	234.1	239.3	810.9	897.2
마케팅	430.2	482.4	502.0	505.7	511.7	513.5	554.4	566.7	1920.3	2124.8
영업이익	505.3	521.6	570.6	610.6	541.7	626.8	660.1	672.4	2208.1	2501.0
YoY	15.0%	10.3%	8.6%	12.7%	7.2%	20.2%	15.7%	10.1%	11.6%	10.7%
OPM	18.1%	17.9%	18.2%	19.1%	16.7%	19.3%	18.9%	18.8%	18.3%	18.3%
순이익	423.7	497.4	734.7	164.6	291.0	569.1	840.8	188.3	1820.3	1971.6
(%YoY)	-23.8%	49.8%	38.6%	-68.0%	-31.3%	14.4%	14.4%	14.4%	5.8%	8.3%
NPM	15.2%	17.1%	23.4%	5.2%	9.0%	17.5%	24.0%	5.3%	15.1%	14.5%

자료: NAVER, BNK 투자증권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9,375	10,928	10,373	12,223	14,492
현금성자산	4,196	5,984	4,880	6,292	8,242
매출채권	478	492	554	604	640
재고자산	22	20	23	25	26
비유동자산	28,793	30,156	31,677	32,869	33,678
투자자산	20,910	21,394	23,538	25,250	26,494
유형자산	2,910	3,608	3,047	2,585	2,205
무형자산	3,657	3,421	3,359	3,301	3,246
자산총계	38,168	41,084	42,050	45,092	48,169
유동부채	6,092	8,019	7,165	7,759	8,191
매입채무	0	0	0	0	0
단기차입금	135	132	132	132	132
비유동부채	5,075	4,113	4,354	4,547	4,687
사채및장기차입금	2,870	1,256	1,256	1,256	1,256
부채총계	11,167	12,131	11,519	12,306	12,878
지배기업지분	25,460	27,582	29,306	31,729	34,422
자본금	16	16	16	16	16
자본잉여금	1,423	1,586	1,586	1,586	1,586
이익잉여금	25,965	27,626	29,349	31,773	34,465
자본총계	27,001	28,953	30,531	32,786	35,292
총차입금	4,378	4,609	2,606	2,630	2,647
순차입금	-3,157	-4,411	-4,990	-6,623	-8,734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현금흐름	2,590	3,096	3,307	3,367	3,378
당기순이익	1,932	1,819	1,972	2,277	2,528
비현금비용	2,577	2,836	1,407	1,394	1,398
감가상각비	674	745	622	520	436
비현금수익	-1,574	-1,474	-257	-268	-319
자산및부채의증감	152	462	713	569	414
매출채권감소	-3	-14	-62	-50	-36
재고자산감소	-13	1	-3	-2	-1
매입채무증가	-251	-12	0	0	0
법인세환급(납부)	-608	-707	-693	-800	-888
투자활동현금흐름	-1,340	-744	-2,450	-1,956	-1,422
유형자산증가	-554	-1,235	0	0	0
유형자산감소	32	14	0	0	0
무형자산순감	-24	-84	0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770	-524	-1,961	2	-6
차입금증가	-377	372	-1,568	24	17
자본의증감	180	164	0	0	0
배당금지급	-119	-168	-394	-22	-23
현금의증가	619	1,788	-1,104	1,412	1,950
기말현금	4,196	5,984	4,880	6,292	8,242
잉여현금흐름(FCF)	2,036	1,861	3,307	3,367	3,378

자료: 감사보고서(12월 결산),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0,738	12,035	13,563	14,784	15,671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총이익	10,738	12,035	13,563	14,784	15,671
매출총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비와관리비	8,758	9,827	11,063	11,900	12,499
판매비율	81.6	81.7	81.6	80.5	79.8
영업이익	1,979	2,208	2,501	2,884	3,172
영업이익률	18.4	18.3	18.4	19.5	20.2
EBITDA	2,653	2,953	3,123	3,404	3,608
영업외손익	343	212	164	194	244
금융이자손익	69	114	139	169	220
외화관련손익	28	-13	0	0	0
기타영업외손익	246	111	25	25	24
세전이익	2,322	2,420	2,664	3,078	3,417
세전이익률	21.6	20.1	19.6	20.8	21.8
법인세비용	390	601	693	800	888
법인세율	16.8	24.8	26.0	26.0	26.0
계속사업이익	1,932	1,819	1,972	2,277	2,528
당기순이익	1,932	1,819	1,972	2,277	2,528
당기순이익률	18.0	15.1	14.5	15.4	16.1
지배기업순이익	1,923	1,953	2,117	2,446	2,715
총포괄손익	2,631	1,938	1,972	2,277	2,528

주요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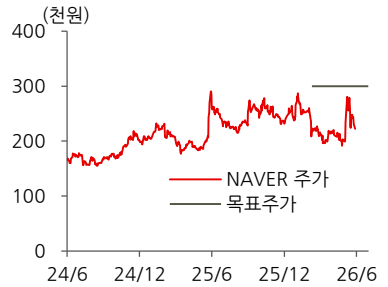
	2024	2025	2026F	2027F	2028F
EPS (원)	11,913	12,376	13,497	15,589	17,306
BPS	166,221	180,117	191,063	206,513	223,673
CFPS	18,180	20,154	19,903	21,693	22,995
DPS	1,130	2,630	2,630	2,630	2,630
PER (배)	16.7	19.6	14.8	12.8	11.5
PSR	3.0	3.2	2.3	2.1	2.0
PBR	1.2	1.3	1.0	1.0	0.9
PCR	10.9	12.0	10.0	9.2	8.7
EV/EBITDA	11.3	11.8	8.8	7.6	6.5
배당성향 (%)	8.7	21.6	20.0	17.3	15.6
배당수익률	0.6	1.1	1.3	1.3	1.3
매출액증가율	11.0	12.1	12.7	9.0	6.0
영업이익증가율	32.9	11.6	13.3	15.3	10.0
순이익증가율	90.0	1.6	8.4	15.5	11.0
EPS 증가율	92.8	3.9	9.1	15.5	11.0
부채비율 (%)	41.4	41.9	37.7	37.5	36.5
차입금비율	16.2	15.9	8.5	8.0	7.5
순차입금/자기자본	-11.7	-15.2	-16.3	-20.2	-24.7
ROA (%)	5.2	4.6	4.7	5.2	5.4
ROE	7.9	7.4	7.4	8.0	8.2
ROIC	39.7	37.7	45.2	68.9	102.2

주: K-IFRS 연결 기준, 2026/6/25 종가 기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종목명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6M)	과리율(%)	
				평균	H/L
NAVER	26/03/05	매수	300,000 원	-29.3	-24.5
(035420)	26/05/08	매수	300,000 원	-25.1	-6.5
	26/06/26	매수	300,000 원	-	-

주가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2Y)



투자등급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6.03.31 기준) / 매수(Buy) 75.4%, 보유(Hold) 24.6%, 매도(Sell) 0.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여의도동) BNK 금융타워 6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 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10-6900 / F 052-271-6111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 BNK 경남은행 / BNK 캐피탈 / BNK 투자증권 / BNK 저축은행